항공사, 비자제한 등 중국發 리스크에도 여객 회복 빨라져

지난해 여권발급 건수 4배 늘어
설 연휴 앞두고 50% 가량 증가
진에어 국제선 탑승객 85% 회복
겨울방학 여행 수요 등 지속 늘듯

중국 정부의 비자 발급 중단 등 보복 조치에도 국내 항공업계의 여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여객 수요에 따른 신규 노선 개발·취항은 물론이고 설날 기간 증편으로 영업이익 증대를 노리고 있다. 여권 발급 급증 속도만 봐도 여객 심리는 고조돼 있는 상태다. 2021년 69만여 건에서 지난해 283만여 건으로 4배 넘게 늘어 향후에도 여객 수요 회복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통상 한 주에 10만 건도 안 됐던 신청 건수가 50% 가량 증가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국제선 탑승객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12월의 8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부산은 75%, 티웨이항공은 72%, 제주항공은 70% 등으로 여객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부활이 점차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이 발급된 여권을 분주히 정리하고 있다. 각국의 방역·출입국 규제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권 발급량도 증가하고 있다. /뉴시스

진에어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높을 것은 확실하다"며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인 국제선 여객 수요가 매달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국제유가도 높고, 환율도 높아 전체적인 탑승실적이 회복됐다 해도 영업이익이 여객 증가분만큼 늘었을지는 지켜봐야 할 실정이다.

LCC 관계자는 "중국 여객을 제외하면 지금의 회복세는 항공업계 정상화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국내 LCC 중 4분기 흑자 전환이 예고된 곳은 진에어와 제주항공이다.

국내 LCC들의 재도약은 일본과 동남아 노선 이용객들의 증가가 결정적이다. 제주항공의 경우 일본 노선 탑승객은 지난해 9월 1만3796명에 불과했지만 10월 8만9094명, 11월 20만2591명, 12월 26만5130명으로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노선 탑승객도 지난해 10월 7만8707명, 11월 11만3551명, 12월 16만8157명 등으로 증가했다.

세계 2위의 항공기 리스(lease) 업체 아볼론의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과 북미 주도로 승객이 70% 회복됐다면 올해 성장은 아시아가 견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항공업계는 향후 설날 연휴 여행 특수와 겨울방학 여행 수요 등으로 겨울 여행 여객이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에어는 최근 27개월 만에 인천~타이베이 노선 운항을 다음 달 1일 재개하기로했다. 총 189석인 B737 항공기를 투입해 주 7회 일정으로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국내선에 임시편 38편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제주항공은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인천~삿포로·오사카 노선를 비롯한 국제선 54편을 증편 운항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12일 국제선 정기 노선인 청주~다낭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이는 약 3년 만에 재개된 청주공항 정기편 국제선이기도 하다.

에어부산도 올해 첫 신규 취항 노선으로 부산~클락 하늘길을 열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왕복 2회 운항 중인 부산~오사카 노선을 3회로 늘리고, 부산~타이베이 노선도 왕복 1회에서 2회로 운항한다.

대한항공은 20~24일 설 연휴에 김포~제주행 노선을 편도 기준 10편 늘려 운항하고 1900석의 좌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포~광주 4편, 김포~제주 2편, 김포~여수 2편, 여수~제주 2편 등 4개 노선 10편의 임시편을 추가로 운항할 예정이다.

대형항공사(FSC)들은 여객 증가는 환영하지만 항공화물 수익은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화물기로 개조했던 7대의 여객기를 다시 여객기로 원상 복구했다. 글로벌 항공 화물 운임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TAC 인덱스에 따르면 발틱항공화물운임지수(BAI)는 이달 현재 2818으로 2021년말 사상 최고치였던 5524에 대비해 절반가량 떨어졌다.

다만,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비교해 떨어졌을 뿐, 지금도 결코 낮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화질·속도 개선… 2억화소 이미지센서 선봬

삼성전자 '아이소셀 HP2' 출시
전하저장용량 최대 33% 높여
자동초점 '슈퍼QPD' 기능 적용

삼성전자가 2억화소 이미지센서를 업그레이드했다.

삼성전자는 '아이소셀(ISOCELL) HP2(사진)'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이소셀 HP2는 종전과 같이 픽셀 2억개를 담았지만, 전하저장용량을 최대 33%까지 높여 화질을 개선했다. 업계 최초로 포토다이오드에서 회로에 수직 구조 게이트를 2개 배치하는 '듀얼 버티컬 트랜스퍼 게이트'로 전자 신호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픽셀이 더 많은 빛을 활용하면서 색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테트라 스퀘어드 픽셀' 기술도 적용했다. 조도 조건에 따라 4개나 16개까지 인접한 픽셀을 묶어 빛을 인식하는 수광 면적을 극대화해 저조도 환경에서 1.2㎛(5000만 화소) 또는 2.4㎛(1250만 화소) 크기로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HDR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ISO 프로'에 '듀얼 슬로프 게인(Dual Slope Gain)' 기술도 새로 적용했다. 픽셀에 들어온 빛 정보를 서로 다른 신호 2개로 증폭하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하나로 합성하는 방법으로 색 표현 범위를 넓혀주는 기술이다. 모바일 AP 지원이 없이 이미지센서만으로도 5000만화소 HDR 촬영을 구현하면서 이미지 처리 속도도 개선했다.

2억개 화소가 모두 자동 초점 기능을 수행하는 '슈퍼 QPD' 기능도 있다. 약 1룩스 밝기의 달빛 아래에서도 상하 위상차로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춘다.

그 밖에 딥러닝 기반 '리모자이크 알고리즘'을 적용해 초고화소 환경에서의 촬영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켰다. 종전보다 촬영 속도를 2배 가량 높였고, 초당 30 프레임의 8K 해상도, 120 프레임의 4K 해상도를 지원한다.

특히 사진 촬영과 동일한 화각에서 초고해상도인 8K 영상 촬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김재웅 기자 juk@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
EU, 기업결합 승인 여부 내달 결정

美·日·英 등도 상반기 결정 예상

EU(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내달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EU 반독점 규제 당국은 2월17일 양사의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남은 국가는 미국과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4곳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추가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고 이르면 이달 26일, 늦어도 3월 23일까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CMA는 대한항공의 영국 항공사 인천~런던 노선 취항 제안을 수용했기에 기업결합이 승인 가능성이 크다.

EU와 일본은 심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신고국과 임의신고국 중 한 국가라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한편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10개국 경쟁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끝마쳤다. /양성운 기자 ysw@

전세계 24개 도시에 '갤럭시S23' 체험공간 연다

삼성전자, 19개국서 3주간 운영
카메라 등 다양한 혁신기능 체험

삼성전자가 다음달 1일(현지시간) 갤럭시 언팩이 개최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더불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두바이 등 전세계 19개국 24개 도시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Galaxy Experience Space)'를 오픈한다.

약 3주간 운영되는 체험 공간은 다음달 1일 개최되는 갤럭시 언팩 이후 누구나 방문 가능하며, 새롭게 공개되는 제품과 다양한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다음달 1일(현지시간)가 전세계 19개국 24개 도시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Galaxy Experience Space)'를 오픈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체험 공간은 ▲카메라 등 혁신 기능 경험 ▲제품 간 상호 연결을 통한 갤럭시 생태계 체험 ▲삼성전자의 지속가능한 일상(Everyday Sustainability) 비전 공유 등 다양한 컨셉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카메라 관련해서 이색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영화 세트장을 테마로 꾸며진 공간에서 영화 감독처럼 촬영하며 새로운 갤럭시 제품의 카메라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조현상 효성 부회장, '부산엑스포' 힘 보태

3년 만에 다보스포럼 참석
YGL 인맥 활용 유치전 합류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사진)이 다보스포럼에 참가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 힘을 보탰다.

효성그룹은 조 부회장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제53회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부회장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것은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포럼 기간 글로벌 리더들과 만나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부회장은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YGL)'로 선정된 바 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는 '한국의 밤' 행사에서 YGL 인맥을 적극 활용해 부산EXPO 유치에 조력할 계획이다.

글로벌기업 CEO들과 만남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등 탄소 감축에 대한 논의들도 이뤄지는 만큼 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인 효성그룹의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조 부회장은 2006년부터 꾸준히 다보스포럼에 참석해오며 다보스포럼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